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정 은 경

손 영 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도덕적 기반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덕적 기반이론(Haidt & Joseph, 2004)은 기존의 도덕성이 서구사회가 중시하는 손상과 공평성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에 존재하는 내집단, 권위, 순수함의 가치를 추가하여 총 5개의 도덕적 영역이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손상과 공평성 영역 이외에 도덕적 기반이론이 제시하는 내집단, 순수함, 권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간통죄를 판단할 때 진보와 보수가 어떤 도덕적 기반을 사용하는지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그룹 및 개인 인터뷰를 통해 간통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 12개를 추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추출된 개념들에 대한 관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간통에 대한 도덕적 판단 네트워크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보수가 진보보다 유의미하게 큰 네트워크와 밀도를 보여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은 도덕적 개념을 사용하여 간통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보는 개인적 자유라는 자율성의 윤리를 바탕으로 간통을 평가하였으며 간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과 자녀, 법률을 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반면 보수는 진보에 비해 순수함과 관련된 항목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불성실, 배신, 죄, 음란함 등과 같은 가치적인 항목이 더 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기반 이론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진보와 보수, 도덕적 기반이론, 간통죄, 사회연결망분석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853).

† 교신저자 :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2123-2444, E-mail : ysohn@yonsei.ac.kr

사람들은 항상 도덕적 평가를 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는 길게 늘어선 줄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에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사회적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뇌물 등과 같은 명백한 범죄 뿐 아니라 존엄사, 용산재개발사건, 장자연 사건, 쌍용차 사건, 간통, 동성애 등과 같이 입장에 따라 모호한 사건에 대해서도 나름의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은 대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첨예화된다.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가? 각종 갈등이 유발되고 격화되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 아닌 심리학이 맡아야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최근 다시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Jost, 2006) 현재 한국에서 사회, 정치적 문제를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이해할 때 한국의 진보, 보수라는 용어는 다소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음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보수라는 단어인 ‘conservatives’는 한국에서 현재 통용되는 보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만, 진보는 ‘liberals’로 진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실제로 진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나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보다 좀 더 긍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분명한 보수임에도 자신의 철학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

다. 정치학이나 언론학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치학이나 언론학에서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재철, 2002; 김경미, 2009).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철학적으로 보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집단을 자유주의가 아닌 진보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 용어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liberals’를 진보로, ‘conservatives’를 보수로 지칭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판단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보주의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자유이다(Gutmann, 2001).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견해를 고려해 본다면(Muller, 1997),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권위에 대한 존중과 체제유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보는 경험에 좀 더 개방적이고,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것들을 더 선호한다(Altemeyer, 1996; Jost, Nosek, & Gosling, 2008; McCrae, 1996; Tetlock, 1984; Van Hiel & Mervielde, 2004). 특히 Jost, Glaser, Sulloway 및 Kruglanski(2003)는 메타분석

을 통해 진보와 보수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변화 및 전통에 대한 태도라는 매우 기본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보수는 진보보다 불평등을 더 잘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하다는 것으로, Jost 등(2003)은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자체의 차이를 구별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도덕가치 차이에서 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였다.

기존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Kohlberg와 Turiel적인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그들은 도덕적 영역이라는 것을 공정성과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Turiel(1983)은 도덕이란 “사람들이 서로 서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justice), 권리(rights), 안녕(welfare)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가 지나치게 서구사회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덕적 영역이 좀 더 다양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Haidt와 Joseph(2004)의 도덕적 기반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을 들 수 있다.

도덕적 기반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도덕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연구한 후 제시된 이론으로, 도덕적 영역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도덕적 영역인 손상(harm/care)과 공정성(fairness/reciprocity)에 더하여 내집단(ingroup/loyalty), 권위(authority/respect), 순수함(purity/sanctity)이 5개 도덕적 기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치의 차이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고 설명한다. 즉 진보는 손상과 공정성 영역에 집중하여 사건을 판단하지만, 보수는 손상과 공정성 영역

뿐만 아니라 충성심, 권위, 순수함 등의 영역 모두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Graham, Haidt, 및 Nosek(2009)은 만 명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수가 진보에 비해 도덕적 가치 평가에 있어서 상기한 5가지 영역을 더 골고루 사용하며, 보수는 진보보다 내집단, 권위, 순수함과 관련된 판단에 더 도덕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기반 이론이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시나리오 중심의 연구를 한 것과 달리 실제 사건이나 이슈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다른 도덕적 기반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 상기한 5개의 영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사건이나 쟁점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Haidt와 Joseph이 추가한 내집단, 권위, 순수함과 관련된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내집단, 권위, 순수함, 자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최근 폐지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간통죄를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알아보았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는 간통에 대해 그와 상간한 자까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간통죄의 입법 목적은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주된 보호법익으로는 사회적 법익),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개인적 법익)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간통죄는 현재 한국, 대만, 필리핀, 멕시코를 포함한 몇

몇 국가에서 범죄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해야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즉 같은 진보라도 혹자는 폐지를, 다른 사람은 유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동일한 입장을 보이더라도 그 이유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간통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관여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 혹은 멘탈모델¹⁾ 추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회연결망분석을 사용하여 간통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의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김용학, 2007)을 목적으로 한다. SNA는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김용학, 2007)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 물리학, 생물학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직내의 인간관계나 웹사이트들의 연결관계 등 네트워크가 분석 대상이라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SNA이라고 할 수 있다.

1) 멘탈모델은 사람의 환경에 대한 이해이며 특정 문제의 서로 다른 상태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표상할 수 있는 스키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Alessi, 1993)

SNA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구조적 표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나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Pathfinder 알고리즘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Cook, Durso, 및 Schvaneveldt(1986)는 MDS와 Pathfinder를 비교한 논문에서 지식의 추출에는 Pathfinder가 더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SNA는 Pathfinder와 동일하게 그래프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황신웅, 2005). 분석 지표로는 크게 연결망의 결속성, 중앙성, 구조적 위치를 측정하는 지표, 소속집단 분석, 등 상당히 많은 지표가 존재하며, 각 지표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통에 대한 도덕적 가치 표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NA를 사용하였다(연구 2). 또한 연구 1에서는 SNA에 투입할 도덕적 항목(node)들을 추출하기 위해 일반인과 진보, 보수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1: 도덕적 판단 개념 도출

연구 1은 간통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방 법

참가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8명과 일반 성인 9명이 인터뷰에 참가하였으며 3~4명으로 구성된 초점화된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이념단체, 즉 진보와 보수 단체 종사자 1명씩, 총 2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의 연령 범위는 20~25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2.7세, 남자 3명, 여자는 5명이었다. 일반 성인 및 이념단체 종사자 집단의 연령 범위는 31~49세였으며, 평균연령은 40.7세, 남자 6명, 여자 5명이었다.

연구 절차

인터뷰는 3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반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고, 이후 참가자들이 말한 내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된 질문을 묻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5개 도덕적 기초영역 중 간통죄와 관련된 영역인 내집단, 순수함, 권위를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기준은 Graham, Haidt, 및 Nossek(2009)이 제시한 도덕적 기초영역을 반영하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울러 많은 인터뷰 참가자들이 자유와 관련된 단어들을 언급하였는데, ‘자유’는 도덕적 기반 이론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손상과 공평성의 토대가 되는 “자유성의 윤리”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Haidt & Graham, 2007). 따라서 자유는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통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추가적 범주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집된 단어들은 내집단, 순수함, 권위, 자유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예들 들면, 이상, 현실 등)은 최종 단어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었다.

단어 분류는 심리학 석사졸업 이상의 심리학자 3명이 실시하였으며 이들 간에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된 단어는 최종 단어목록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남은 단어 목록 중 중복되거나 개념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제외하였으며, Graham 등(2009)이 제시한 단어들 중 간통죄에 중요하나 인터뷰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단어 1개(음란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어인 간통죄를 포함한 12개의 단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결과 및 논의

단어 분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단어 목록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배신, 불성실, 가정, 자녀(내집단 범주), 죄, 음란한, 깨끗한(순수함 범주), 사생활, 개인, 자유(자유 범주), 법률(권위 범주)과 주제어인 간통 등 총 12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는 도덕적 기초 이론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도덕적 판단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유라는 가치가 철학적 기초에서는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Graham, Haidt, 및 Nossek(2009)이 손상이나 공평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한 단어목록에는 포함되어 있

표 1. 간통죄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최종 목록

도덕적 기반(범주)	단어	관련 언급 및 출처
	간통	주제어
내집단	배신	“그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거나 다름없어요.”
	불성실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	“가정이 해체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순수함	죄	“간통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음란한	Graham, Haidt, 및 Nossek(2009)의 선정 단어
	깨끗한	“내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불결하고 더럽게 느껴져요”
권위	법률	“그걸 법, 그것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생활	“그건 사생활 문제 아닌가요?”
자유	개인	“사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죠”
	자유	“성생활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지 않다.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를 손상이나
공평성과는 독립된 범주로 분리되어야하는지
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연구 2: 도덕적 판단 네트워크 분석

연구 1에서 추출된 간통과 관련된 도덕적
개념들을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표상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
하였다. 진보에 비해 보수의 네트워크에 내집
단, 권위, 순수함과 관련된 가치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더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방 법

참가자

스키마의 추출은 해당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사고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연
구1에 참여한 참가자는 배제되었다. 20~60대
연령의 성인 3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중 83%인 30명은 실제로 진보 혹은 보
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응답자 중 자기보고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9점 척도, 양방향에 각 4점,
중도는 0점에 표시)에 중도라고 대답하거나
보수단체에 종사하면서 진보라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소속과 자기보고식 정치성향이 일치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는 3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성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			
		남	여	중등졸	고등졸	대졸	대학원
진보	36.75세(10.24)	30%	70%	5%	10%	65%	20%
보수	33.70세(9.26)	70%	30%	0%	20%	70%	10%

연령의 해당 값은 평균, ()은 표준편차

명(진보 20명, 보수 10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도구 및 절차

네트워크 분석 위한 설문지는 연구 1에서 도출된 12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12개의 요소들이 모두 짝 지워 제시 되는 형태로(12×11=132문항), 각 문항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7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두 요소간 관계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32문항의 설문을 모두 마친 참가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문항을 포함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분석방법

12개의 개념 각각에 대해 나머지 11개 개념

간의 관계를 평가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자료는 비대칭적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각 사람당 하나씩 생성되었으며, 이후 진보와 보수 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료값을 평균하여 다시 각 집단별로 한 개씩의 비대칭적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NetMiner를 비롯한 사회연결망분석 소프트웨어들은 0이상의 수치를 가진 연결들은 모두 연결선을 통해 표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보다 명확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관계들만 자료에 반영하였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SNA는 연결망의 결속, 중앙성, 구조적 위치, 구조적 공백, 소속집단, 기타 등 다양한 분석 개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지표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스키마 네트워크 분석이므로 전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A 분석 지표

지표	내용
전체네트워크	연결정도(크기): 한 항목(node)이 맺고 있는 다른 항목의 숫자 연결망밀도: 가능한 총 관계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
중앙성(연결중앙성)	전체 연결(link) 수에서 각 항목의 연결 수에 대한 비율
소속집단	결속집단(Clique): 완전히 연결된 최대 하위 집단 커뮤니티: Girvan과 Newman(2002)의 알고리즘

표 4. 진보와 보수의 SNA 분석지표에 대한 기술통계치

정치성향	크기	밀도	중앙성
진보	4(2.64)	0.59(0.37)	0.30(0.22)
보수	8(1.68)	0.76(0.11)	0.56(0.14)

해당 값은 평균, 0은 표준편차

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연결망의 연속, 소속 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결과 및 논의

전체 네트워크 비교

간통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멘탈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진보보다는 보수의 네트워크에서 간통에 연결된 개념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t(22)=-5.14, p < .001$, 그리고

더 밀도 있게, $t(22)=-2.10, p < .05$,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보의 네트워크에서 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의 수는 총 6개로, 그 중 사생활, 자유, 개인 3개(50%)는 자유와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자녀와 가정(33%)은 내집단과 관련된 것이며 법률(17%)은 권위와 관련된 항목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살표를 살펴보면, 간통에 영향을 주는 항목(in)과 간통이 영향을 주는 항목(ou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녀와 법률의 경우 간통이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 간통이 이 두 요소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보는 권위 범주에 해당하는 법률과 내집단에 해당하는 자녀는 법적 처벌이나 가정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멘탈모델에 들어가 있을 뿐 이것이 간통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진보는 깨끗함과 음란함은 간통과 관련된 도덕적 개념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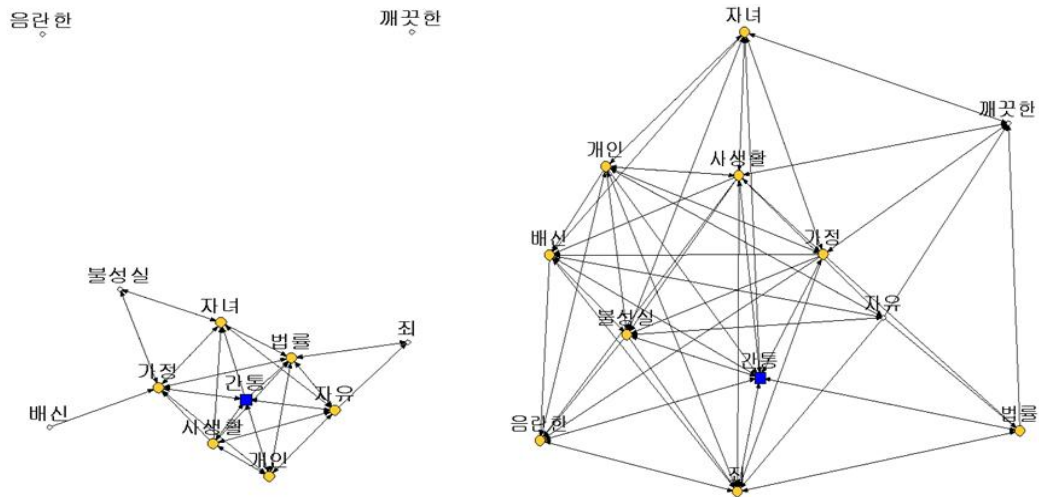


그림 1. 진보와 보수의 전체 네트워크(왼쪽: 진보, 오른쪽: 보수, 회색의 큰 원이 간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념임)

보수의 네트워크에서 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항목의 수는 총 9개로, 그 중 개인과 사생활(22.2%)은 자유와 관련된 항목이며 가정, 배신, 자녀, 불성실(44.4%)은 내집단과 관련된 것이고 법률(11.1%)은 권위, 음란과 죄(22.2%)는 순수함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구체적인 화살표 방향을 살펴보면, 9개 요소 모두가 간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수는 자유범주 뿐 아니라 권위, 내집단, 순수함에 해당하는 도덕적 가치도 간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수는 자유범주의 핵심항목인 자유는 간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유가 간통과는 간접적인 관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에 영향을 주는 진보와 보수의 멘탈모델에 있어서 각 도덕적 기반 범주내의 요소 개수간의 차이를 카이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개념 수가 상당히 작고, 본 연구의 목적 또한 기존의 도덕적 개념인 자유 요소와

추가된 개념들 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내집단, 권위, 순수함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자유범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도덕적 범주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chi^2(1)=3.26, p < .01$. 진보는 보수에 비해 자유와 관련된 요소들을, 보수는 진보에 비해 내집단, 권위, 순수함과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앙성 비교(연결중앙성)

지역중앙성을 대표하는 연결중앙성은 한 결점(node)에 연결된 결점의 수를 의미하며 연결중앙성이 높을수록 가장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을 중앙에 놓고 배치했던 전체 네트워크와는 달리 연결중앙성은 간통과 관련된 항목들(결점) 각각이 평등한 입장에서 계산되며, 따라서 간통이 가장 중앙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결중



그림 2. 진보와 보수의 연결중앙성(왼쪽: 진보, 오른쪽: 보수)

양성은 보수가 진보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t(22)=-4.16, p < .001$, 각 개념들간의 연결성은 진보보다 보수가 더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진보는 간통과 관련된 도덕적 개념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을 가정과 법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개인, 자녀, 자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는 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음란함, 불성실, 배신 등의 순이었다. 즉 진보는 가정과 법률과 같은 간통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 및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는 이보다는 죄와 같은 좀 더 개인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속집단 분석

소속집단은 전체 네트워크가 어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결속집단(Clique)과 커뮤니티(community)를 분석하였다.

우선 결속집단은 양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되

어 있어 직접적인 결속이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집단 분석 중 가장 엄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통과 관련된 결속 집단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진보의 네트워크에서는 법률, 사생활, 간통, 개인, 자유가 가장 응집성이 높은 결속집단이며, 그 밖에 가정과 자녀가 부차적으로 같이 묶이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수의 네트워크에서는 사생활, 배신, 불성실, 개인, 간통, 가정, 음란함, 죄가 가장 응집성이 높은 결속집단이며, 그 밖에 자녀와 법률이 부차적으로 같이 묶이는 개념이다. 이는 진보는 간통을 주로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는 간통이 자유 뿐 아니라 내 집단, 순수함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분석은 Girvan과 Newman(2002)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goodness-of-fit) 커뮤니티 구분을 t 값으로 제시해주고 있다(김용학, 2007). 진보와 보수의 커뮤니티 분석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진보의 경우 5개의 커뮤니티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4)=3.64, p < .05$,

표 3. 진보와 보수의 결속집단 분석

진보	응집성 지수	결속 집단	보수	응집성 지수
법률, 사생활, 간통, 개인, 자유	3.50	K1	사생활, 배신, 불성실, 개인, 간통, 가정, 음란함, 죄	2.00
법률, 사생활, 간통, 개인, 가정	3.18	K2	사생활, 배신, 불성실, 개인, 간통, 가정, 자녀	1.66
법률, 사생활, 간통, 자녀, 자유	3.18	K3	법률, 죄, 간통, 가정	1.524
법률, 사생활, 간통, 자녀, 가정	2.91	K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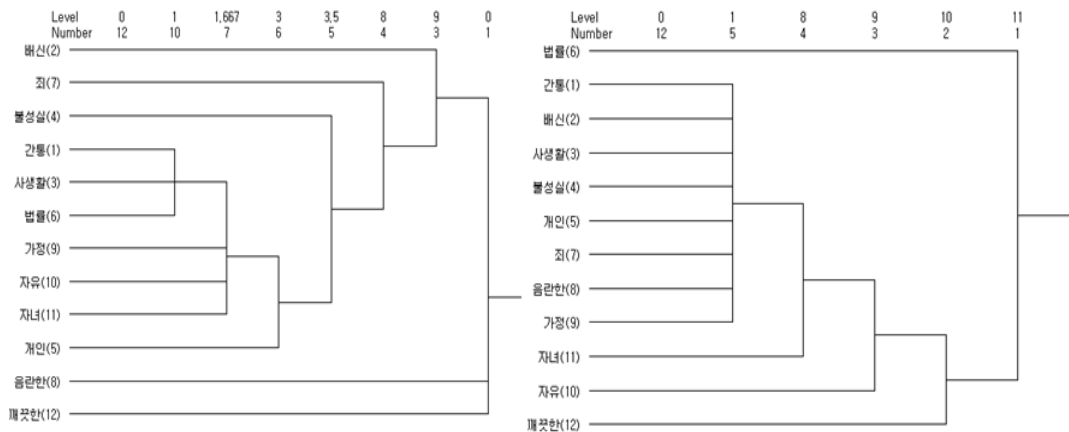


그림 3. 진보와 보수의 네트워크에 대한 커뮤니티 덴트로그램(왼쪽: 진보, 오른쪽: 보수)

간통은 자유, 개인, 사생활, 불성실, 가정, 자녀, 법률과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밖의 배신, 죄, 음란한, 깨끗한은 각각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반면, 보수는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적절한 커뮤니티 구분을 산출하지 못했는데, 즉 모든 개념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집단 분석을 요약하면, 진보는 순수함과 관련된 개념은 간통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보수는 간통이 자유, 내집단, 순수함, 권위 등의 도덕적 기초 대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판단 차이와 관련되어 도덕적 기반이론(Haidt & Joseph, 2004)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내집단, 권위, 순수함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도덕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도덕적 기반 이론은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보수는 진보에 비해 간통에 대해 더 많은 도덕적 영역을 사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진보는 보수보다 자유 영역에, 보수는 진보보다 순수함 영역에 더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보는 간통의 구체적인 결과와 관련된 가정과 자녀만이 관련 요소라고 평가하였으나 보수는 불성실이나 배신과 같은 실제 내집단에 대한 충성심(loyalty)을 중요한 요소로 꼽아 도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보수가 내집단/충성심을 더 중시하여 간통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성도덕(sexual morality)에 대해 연구한 Haidt와 Hersh(200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상기 저자들은 진보와 보수가 견해차를 보이는 성적 행동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반응과 판단을 연구하였는데, 역시 진보는 자율성의 윤리(ethics of autonomy), 즉 손상에 기초한 도덕 판단을 보였으며, 보

수는 공동체의 윤리(ethics of community)와 신성성의 윤리(ethics of divinity)를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동성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친상간의 행위가 중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보는 역시 근친상간 유형과 관계없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으나(0~25%) 보수는 50%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진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답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윤리 혹은 신성성의 윤리를 진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중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역시 개인의 자율성 윤리에 따라 판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제는 Haidt와 Hersh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동성애, 비정상적 자위행동, 근친상간)보다 성적 이탈적 측면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한국 사회에서 간통은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와 비슷한 일탈성 수준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성적 일탈이 좀 더 심한 근친상간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적 가치가 진보와 보수의 멘탈모델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특성은 집단에 따라 달랐다. 내집단의 핵심 가치인 충성심과 관련된 요소, 즉 배신이나 불성실은 역시 보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진보는 가정과 자녀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진보가 내집단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간통은 가정해체와 자녀부양 등의 새로운 현실적인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법률 항목이 진보에 중심으로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가 보수보다는 좀 더 결과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보수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결과보다 배신이나 불성실, 죄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더 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원론적인, 혹은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는데, Uhlmann, Pizarro, Tannenbaum, 및 Ditto(2009)가 지적하였듯이 사람들은 도덕적 원칙을 자신의 필요와 동기에 따라 사용하곤 하며, 진보와 보수도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결과주의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진보가 결과주의적인 사고를 하는지는 진보가 중시하는 가치를 담은 주제에 대해 검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전형적인 도덕적 판단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판단기반의 차이가 정치적 중도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 참가자의 성비가 진보는 여자가 많고 보수는 남자가 많았다. 현재 선행연구에서 여자가 더 진보적이라거나 남자가 더 보수적이라는 연구는 없는 상태로, 본 연구결과가 성별의 효과 때문이라

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일으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 연구*, 12(1), 45-60.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이선아 (2009). 감성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스키마 부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철 (2002). 한국언론과 이념담론. *한국언론학보*, 46(4), 314-348.
- 황신웅 (2005). 모바일 기기 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멘탈 모델의 추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ltemeyer, R. A.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e, N. M., Durso, F. T., & Schvaneveldt, R. W. (1986). Recall and measures of memory organ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2, 538-549.
- Girvan M., & Newman M. E. J. (2002). Comm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99, 7821 - 7826.
- Graham, J., Haidt, J., & Nosek, B.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use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029-1046.
- Gutmann, A. (2001). Liberalism. In Smelser N. J., and Baltes P.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Elsevier.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 98-116.
- Haidt, J., & Hersh, M. (2001). Sexual morality: The cultures and emotions of conservatives and liber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191-221.
- Haidt, J., & Joseph, C. (2004). Intuitive ethics: How innately prepared intuitions generate culturally variable virtues. *Daedalus*, Fall, 55-66.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651-670.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26-136.
- McCrae, R. R. (1996). Social consequences of experiential openness. *Psychological Bulletin*, 122, 323-337.

- Muller, J. Z. (1997). What is conservativ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In J. Z. Muller (Ed), *Conservatism: An anthology of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tlock, P. E. (1984).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belief systems in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65-375.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hlmann, E. L., Pizarro, D. A., Tannenbaum, D., & Ditto, P. H. (2009). The motivated use of moral principl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4, 479-491.
- Van Hiel, A., & Mervielde, I. (2004). Openness to experience and boundaries in the mind: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and economic conservative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72, 659-686.
- 1 차원고접수 : 2011. 3. 28.
수정원고접수 : 2011. 6. 22.
최종게재결정 : 2011. 8. 30.

Liberals and Conservatives Differ in Moral Foundations: How They Think Adultery?

EunKyung Chung

Young 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which moral foundations liberals and conservatives use when they make moral judgments of social issues. Moral foundations theory (Haidt & Joseph, 2004) suggests three moral foundations, authority/respect, ingroup/loyalty, purity/sanctity in addition to harm/care and fairness/reciprocity which have been focused in western society. To test moral foundation theory based especially on the three additional moral domains, we elicited and analyzed liberals' and conservatives' schemata for adultery. In Study 1, we found 12 moral elements for adultery through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s. In Study 2, we analyzed liberals' and conservatives' moral schema networks for adultery. Social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conservatives' moral network was larger and denser than liberals'. In addition, liberals judged adultery on the basis of the ethics of autonomy (freedom) and thought that consequential values of adultery (family, children, law) were highly relevant with adultery. By contrast, conservatives used more purity-related factors (e.g., sin, obscene) than liberals and thought that deontological values (disloyal, betray) were highly relevant with adultery. These findings suggest moral foundations theory can be also valid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liberals and conservatives, moral foundations theory, adultery, social network analysis